

기획대담

중국연구와 동아시아론 : 한국의 지성 백영서(白永瑞) 선생님과과의 대담



백영서 교수 소개

백영서 선생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문과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계간 『香港中國近代史學報』, 『臺灣社會研究』 등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1953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원장, 계간 『창작과 비평』의 주간을 역임하고, 현대중국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백영서 선생님은 동아시아론과 중국의 학술사, 사상사 연구를 통해 지식인들의 사변적 연구를 넘어 실학적 학문실천으로의 확장을 모색하였다. 저서로는 『중국현대대학문화연구』, 『동아시아의 귀환』,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공저)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공편), 『대만을 보는 눈』(공편), 『思想東亞:韓半島視覺的歷史與實踐』,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 『사회인문학의 길 : 제도로서의 학문 운동으로서의 학문』, 『橫觀東亞:從核心現場重思東亞歷史』 역서로 『오끼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공역), 최근논문 「从核心现场重思“新的普遍”:评论“新天下主义”」, 『開放時代』, 2016.1期 등이 있다.

일 시: 2016년 5월 24일 오후 2시

장 소: 연세대학교 인문대 학장실

참가자: 최은진, 박철현

최·박: 중국인문사회연구소의 저널 『중국지식네트워크』는 창간호 이래 기획대담을 통해 국내외 중국연구에서의 주목할 만한 지식인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이번호에는 중국역사 전공자이시면서도 오랫동안 『창작과 비평』을 주관하셨고, 연세대 국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문과대학 학장으로 학문과 현실을 연결하고 활동하시는 백영서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 중국연구자로서의 궤적

최: 본 저널의 지난 6호 대담의 주인공이셨던 성공회대학의 장영석 선생님께서 중국 연구가 기피되던 유신시기에도 중국연구를 시작한 선생님께서 대해 중국연구 개척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을 연구하는 전체 중국연구자들에게도 선생님의 중국 연구가 끼치는 영향은 매우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특별히 대만이나 해외로 유학을 가지지 않고 국내에서 그것도 중국연구를 진행하기 힘든 시기에 중국연구를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백: 저는 사실 중국사를,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국사를 공부하려고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72년도에 입학했는데, 그 직전에 저의 입학 동기는 역사철학 같은 것을 공부할 하는 곳인 줄 알아서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무엇으로 움직이는 것이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역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역사철학에서 흔히 다루는 혹은 철학과에서 다루는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했지요. 왜 그랬냐면, 제가 고등학교 2-3학년 때 영어로 된 책 한권을 읽었는데 “역사와 종말론”(R. Bultmann,

History and Eschatology)이라고 하는 역사신학에 관한 책이었어요. 서양의 역사철학을 다룬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관심이 동아시아에서 혹은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파악하면 참 재미있겠다 싶어서 동양사학과를 지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학에서 하는 게 동양사개론이라든가 고대사부터 다루는 시대사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듣다보니 기존에 배운 것과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크게 재미를 못 붙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에 말하자면, 씨클에 참여하게 되었죠.

사회과학 씨클에 가입하고 나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자본주의 발달사를 공부하고, 사회사상사를 공부하고, 역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역사의 법칙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토론하고 했어요.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사를 공부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한국사를 공부하고 하다 보니 그게 더 재미 있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학교 공부에 흥미를 덜 붙이게 되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도 학문을 하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기에 대학원을 가야하나 학생운동을 계속 해야 하나 갈등하던 게 2학년 말과 3학년 초였어요. 저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게 1974년 민청학련사건이었어요. 동료들이 사전에 검거되고 이러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없이 그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감옥생활을 일년간, 정확히 10개월 반하고 형집행정지로 나오게 되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교도소에 있을 때, 당시 젊은이들의 우상이던 김지하 시인하고 같은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분이 '동양사학과를 잘 간 거다. 중국혁명이 중요하고 중국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너 나가면 중국공부를 하고 현대사를 공부하라' 그러면서 리영희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 그분을 찾아가 사사 받은 거죠. 제도권 바깥에서 개인조교 노릇 하면서 인맥을 쌓고 현실중국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사와의 관계는 어긋난 만남이었던 것이고 운동으로서의 학문을 통해 중국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중국에 관심이 있던 결실로 『창작과 비평』 1979년 가을호 제3세계 특집에 중국형 경제발전모델에 관한 글을 썼어요. 운동으로서의 학문을 한 결실을 1979년 가을호에서 맺은 것이죠. 그 당시에 저는 제적생이었고, 대학도 졸업을 못했는데 창비에서 기회를 줘서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쓴 겁니다. 그 과정은 리영희 선생이 글 쓰는 방식으로 글을 써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나름대로의 중국연구를 하게 된 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1979년 가을에 그 글을 발표하고 나니 갈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약간 저널리스틱한 글을 쓴 셈인데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욕구가 들었어요. 그 당시로는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그러던 차에 79년 10월에 박정희가 사망하고 80년에 대학교에 복학하게 될 때 ‘아, 이제 나는 공부에 전념하겠다. 대학원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두기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 선생님 그러면 처음에 대학에 진학하실 때 민 선생님이 학과에 안 계셨었나요?

백: 계셨죠. 제가 대학교 면접 볼 때 한복을 입은 민두기 선생님하고 고병익 선생님이 계셨어요. 대학교수는 저렇게 우아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신비스럽다고 할까. 아우라가 있는 그런 대학교수

상이었어요. 지금 제가 대학교수인데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불지는 모르겠지만.

최: 창비에 글을 쓰실 때는 아직 중국과의 긴밀한 교류는 없었을 텐데 쓰신 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백: 79년에 쓴 그 글은 중국이 모택동 모델로서의 자생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하던 것에서 76년 개혁개방 이후 넘어가는 과정에서 종래의 모택동 시대 경제발전모델에 대해 나온 비판들을 정리한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리영희 선생의 생각을 동조하면서 70년대의 문화대혁명의 이미지가 우리 변혁운동의 모델이랄까, 대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던 것인데 그게 조금씩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비판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이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도기적인 모택동 모델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어떻게 동시에 처리할까 라는 고민이 담겨 있는 글이었어요. 창비의 제 3세계 특집 기획이었기에 중국형 경제발전모델이 제 3세계의 모델일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를 담았던 것이지요.

최: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하려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화교에게 중국어를 배우셨다고 저널의 지난 호 장영석 선생님과 인터뷰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백: 리영희 선생님이 인천 화교학교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어요. 리영희 선생님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하셨을 때 아르바이트로 영어 동시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난 중국어 동시통역하던 분이죠. 그 당시에는 정식 통역 회사들이 없고 개인들이 많이 했는데 동시통역으로 참여했던 화교 여성을 저한테 소개하면서 같은 인천지역이니 중국을 계속 공부하려면 중국어를 깊이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소개시켜주셔서 중

국어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전에 출옥하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민족문화추진회를 다니며 고전한문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조금 지루해지던 차에 중국어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국어 공부를 하려면 대만 사람들과 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 생각에 대만은 주로 반공위주의 장개석 독재정권이었다는 생각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중국어 공부도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다시 정리를 하면 선생님께서는 중국을 연구하기 위해 역사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신 것이 아니고 운동의 과정에서 중국연구에 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백: 역사철학을 하는 줄 알고 동양사학과를 갔다가 실망해서 학생운동 하는 씨클에서 역사공부를 했고 감옥 갔다 와서 중국 현실을 만나게 되고 중국 현실의 기원이랄까 혁명의 맥락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 현대사에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최: 중국 연구를 통해 한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백: 저는 중국 공부 하는 것에 대해 아마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사를 공부하거나 외국 문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대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다시 본다는 쌍방향 작용이랄까, 서로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요. 중국을 공부해서 한국을 다시 보고 한국을 보면서 중국을 다시 보고. 그럴 때 학문의 사회적 기능도 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국제학계에서도 독창성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중국 현대사의 대학과 지식인으로서의 학생에 주목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학술사, 학문생산의 제도사 등에 대한 연구로 확장해 가셨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동양사학에서는 잘 주목하지 않던 분야이며 주로 역사학자들이 고대와 전근대를 연구하는 것이 더 학술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연구분야에 주목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백: 사전에 주신 질문지를 보면 맨 마지막에 있어서 나중에 대답을 하려고 미뤘던 것이기도 한데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제기한 ‘중국 현대사의 대학과 지식인으로서의 학생문화에 주목한 연구에서 시작하여 학술사, 학문생산의 제도사 등에 대한 연구로 확장해 가셨습니다.’ 라는 질문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 이런 얘기가 동료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참고 사항으로 말해보자면 중국의 역사나 현실에 대한 저의 학술적 분위기랄까 풍격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역사문제와 현실문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20세기 중국현대사 전공자이지만 지금에 진행되는 문제 또는 담론에도 관심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것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현실의 기원을 보기 위해서 19세기, 20세기에 관심을 갖는 것만이 아니고 지금의 문제도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그 구분 자체가 중국을 연구할 때는 특히 과거와 현실의 구별이나 구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은 그야말로 유동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제 연구의 특징 중 하나예요. 누구는 ‘현대사한다면서 민국시대면 민국시대고 30년대면 30년대지 왜 오늘날 얘기를 했다가 과거 얘기도 하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저의 학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 ‘자기 정체성의 탐구’와 연관이 되는 연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흥미로운 것만 연구를 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연구하는 것이긴 한데 그 흥미로운 것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고 호사가로서의 취향이 아니고 자기 정체성의 탐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대상을 중국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고전의 용어를 빌리면 ‘위기지학(爲己之學)’이죠. 자기를 닦는 학문이다. 자기 탐구와 자기혁신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세부적인 문제의 싫증이나 이런 것에만 빠져서 나중에 지치고 재미없어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왜 박사학위논문으로 중국 현대 대학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냐라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어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약간 앞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석사논문은 5·4 운동 시기의 주집신(朱執信)에 대해 썼어요. 그걸 쓰게 된 이유는 제가 학생운동 하다가 뒤늦게 복학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석사과정을 단국대학교에서 밟아 84년 2월에 마치고 84년 3월에 서울대 박사과정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제도적으로는 단국대에서 석사과정을 했지만 민두기 선생님께서 개인지도를 따로 해주셨어요. 격주로 그분 연구실을 다녔습니다. 중국철학과와 중국사학사라는 두 기본과목을 각각 한 학기씩 이수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5공화국의 공안정국이 한창인 1982년 석사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서울대에서 운동권 출신이라고 안 받는다고 했어요. 시험 보기 전날 민두기 선생님한테 제 서류를 철회시켜라 했고 민두기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떨어뜨릴 것 같으면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셨죠. 시험은 봤는데 물론 떨어졌어요. 그래서 민두기 선생님이 화가 나서서 저를

개인지도 해주신 거예요. 어디든지 적을 뒤라 해서 단국대에 적을 두었고 개인지도를 받았는데 개인지도하는 과정에서 민두기 선생님께서 석사논문 주제를 뭘로 정할거냐 할 때 저는 그 당시 젊은 나이여서 당연히 공산주의운동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선생님께서는 그러는 것이 아니다. 너의 신분을 봐도 그렇고 또 역사공부 할 때는 구조적 조건부터 알고 행위주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구조적인 맥락을 모르면 역사적 맥락도 놓친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히 저희 또래들한테는 장개석을 연구하라고 하든가. 원세개를 연구하라고 하든가. 이런걸 시키셨지요. 그리고 저한테는 국민당 연구를 하라고 하셨죠. 그러시더니 그런데 넌 국민당 연구만 하면 지루해할 거니까 하시며 그 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지금 대만의 국사관 관장하는 여방상(呂芳上) 교수가 쓴 석사논문이었어요. 손문 측근의 급진적 인물로 공산당선언을 번역소개한 주집신(朱執信) 연구였지요. 그 논문을 주시면서 이걸 보고 네가 이것보다 더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써봐라. 그래서 그가 주도한 54운동기 월간지 『건설』지를 중심으로 손문집단이 왜 54운동에 적극 관심가졌는지를 규명한 논문을 썼고, 박사과정 들어와서도 대계도(戴季陶), 서산회의파와 추로(鄒魯)등 국민당 우파에 대해서도 쓰고 했어요. 그런데 박사과정 논문까지 그걸 쓰려고 하니까 엄청 지루하더라구요. 민두기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하긴 했는데 지루하던 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림대학교 교수를 86년도부터 했는데 거기서 학생운동이 벌어졌던 거예요.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에서 교수가 된 입장으로서 80년대 학생운동을 보니까 또 느낌이 달랐어요. 꼭 저래야 하는가. 수업을 거부하고 그러는 것이 걱정도 되고. 젊은 시절 나도 고생했는데 학생운동이라는 것이 뭘까. 왜 학생들은 자기 삶을 바쳐서 저렇게 하는지 규명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20년도의 중국 대학생들의 운동을

대학문화의 시각에서 보자하고 이것을 학위논문의 테마로 잡았고 민두기 선생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더라구요.

민선생님은 점점 문화사나 신문화사가 더 중요해질텐데 내가 뭐 단순히 제도의 측면에서 공산주의 기원을 본다든가 이념, 경제사가 아니고 문화사로 본다는 것은 해볼만 할 것이다면서 하라고 하셨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정체성과 관련해서 저를 탐구하면서 저를 성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제 연구 주제나 대상과 연결시킬까 고민했기 때문에 지적인 흥미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때 그때의 흥미가, 제 정체성의 문제가 부딪히는 것을 연구 테마로 정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다 보면 지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에서는 현장조사나 사례연구만 깊이 하는 데 빠지게 되요. 처음에는 재미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나중에는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라든가, 또는 중국 현실이든 또는 오늘의 한국 현실이나 한국 담론, 중국 현실이나 중국 담론과 접점을 찾아야 해요. 현실 논의에 끼어 드니까 반향이 크잖아요. 그러므로 또 자기 관심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연구를 양적으로 많이 쌓아가다가도 어느 때 가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업적은 쌓아지는데 연구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요.

최: 저도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흥미 있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호사가적인 취미로 가는 경향이 생기기도 하고, 현실문제에서 동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사실 저 뿐만 아니라 요즘의 연구환경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업적 성과 쌓는데만 급급한데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게 또 연구자 개인의

성찰로만 해결 되는 것도 어렵다고 봅니다. 자기 정체성을 사회적인 부분 혹은 현실 문제에 연결할 수 있는 선생님의 생각과 실천 속에서 ‘사회인문학’이 주창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사회인문학을 주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도로써 운동으로서의 학문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는 알지만 실제 평가위주의 학문환경의 변화, 연구비와 연동된 양적평가의 중압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와 운동으로서의 학문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지요.

백: 질문지를 받아 읽으면서 제가 제일 답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년 지나면 정년인데 정년 맞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하기에는 젊은 후배랄까, 연구하는 후학들한테는 부담이다 싶습니다. 저는 그만두는 자유로운 입장인데. 제도적인 제약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젊은 학자들, 연구자들은 취직에서부터 승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양적인 평가의 기준에 얽매어야 하고 하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 정체성 탐구라든가 현실과의 접맥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그런 점에서는 소위 요즘말로 연구의 생태계를 바꿔줄 필요는 있어요. 그건 나이 먹은 선배세대들이 해야 할 몫이고 저도 그런 부담을 느낍니다. 말하자면 그런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을 때 가지고 있는 자원이랄까, 제도적인 가능성들을 확보했을 때 사회인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어서 추진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출구를 열어줄 수 있

고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보면 그런 출구도 있다. 그런 해결책도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수행했어요.

단순히 그건 또하나의 분과학문이 아니고, 사회인문학이라는 것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사회현실과 학문의 만남이고 동시에 분과학문을 넘어서는 학제적인 융합연구의 방향이었거든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해 오던 학문연구의 방향이었고 그것을 여러 동료들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사회인문학을 주창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멋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하면서는 저도 딜레마가 많았습니다. 결국 양적인 평가 지표를 고려 안하면 사업단의 평가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그것도 해야 하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한테 국제지에 발표하라는 압력도 가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도 안에 사는 한은, 대학 안에 들어온 이상은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제도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지속적으로 학문 생산을 하는 곳이니까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로서의 학문'과 '운동으로서의 학문'의 결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사회인문학이라는 것도 국학연구원 안에서 그 양자를 결합시켜보려는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I. 학문연구와 동아시아론, 학술사 연구

최: 동아시아론에 관해 논의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연구나 학문세계 하면 동아시아 담론, 동아시아론이 떠오르는데요 지금은 동아시아 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틀을 만들고 영향을 끼치는 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됩니

다. 특히 동아시아를 논했던 기존의 연구와도 다른 선생님만의 관점, 방법을 얘기하셨다고 보이는데요 프로젝트로서의 동아시아, 핵심현장 등 동아시아를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현재문제와 깊이 관련짓는 감수성을 지니고 바라보는 연구의 시각과 태도 나아가 방법으로 제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를 논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고 동아시아에 대해 연구해야 하는 인식을 보편적으로 지니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동아시아 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 실체 여부 등에 대한 과거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동아시아론을 학문의 화두로 제기하신 이유와 이에 대한 소개 등을 부탁드립니다.

백: 이것도 국내외의 여러 지면에서 조금씩 얘기한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 또한 내 정체성,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90년에 한림대학에 있을 때 하버드 옌칭연구소에 비지팅 펠로우(visiting fellow)가 되어서 일년 넘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해외유학파도 아니고 처음으로 여권을 얻어서 해외여행도 처음 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많은 자극을 직접 받았습시다만 동아시아론과만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90년대 미국 갈 때만 해도 잡지 출판에도 관여하고 글도 쓰고 이래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주로 묻는 것이 한국 얘기예요. 당시는 한국이 87년 이후 민주화가 되는 과정이었으니까 한국에 대해 묻고 한국 역사에 대해 묻는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나는 중국 전문가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89년에 천안문 사태 나고 많은 사람들이 망명해 오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하버드 옌칭 근처에 바글바

글했어요. 그런데 중국 문제를 왜 저한테 묻겠어요. 바로 현지인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중국사 연구자의 정체성, 경쟁력은 어디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차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전에 시카고 대학 교수하던 두아라(Prasenjit Duara)가 하버드 대학교로 옮기려고 세 명의 후보자의 하나로 공개 강연을 하러 왔어요. 그 때 발표했던 것이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만 만주에서의 종교 문제 가지고 발표를 하더라구요. 강연 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인도계로서 종교에 대한 감수성,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국사 연구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토픽을 한다면서 삼사십년대 만주에서의 종교문제를 가지고 세계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책으로도 나왔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어요(『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하! 저거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역사나 현실에 대한 관심과 중국사 연구를 결합을 시켜야 독창적인 것이 나오지 왜 자기의 고유한 경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거예요. 한국인 중국사 연구자가 미국 가면 곤잘 느끼지만 한·중·일어를 다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점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 점을 더 적극적으로 의식하면 곧 동아시아적 시각이 되는 거죠. 중국사를 연구하더라도 한국의 경험, 일본의 경험을 아울러서 중국을 동아시아 지역 속에서 다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한 거죠. 그러다 일년 뒤 귀국을 해보니 한국도 이제 동남아 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했고 국교 수교하면서 중국에도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용어로 설명하면 우리 안에 동아시아가 이미 들어와 있고 동아시아 속에 우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나 민족운동에 대해서도 반성이 생기면서 전투적인 민족주의와 민족운동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발견, 동아시아의 발견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시대적 화두가 되는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 조짐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 개인 경험, 정체성을 찾던 개인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의 행복한 결합이 이뤄진 것이죠. 그리고 창비라는 계간지 편집위원으로서 동아시아 담론을 특집등으로 확산시키니 저절로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부터 동아시아 담론이 대두되고 확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제 개인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 요구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은 배경을 설명한 겁니다.

저의 동아시아론이라고 한다면 연구의 태도이자 방법이지 연구의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에 예를 들면 중국 현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동아시아적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저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동아시아는 연구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인 국경을 넘나드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런 연구는 많잖아요. 화교 연구도 할 수 있고 이민자 연구도 할 수 있고 박물관도 비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연구 대상이에요. 저의 연구 대상은 한국 안의 화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연구 대상 자체가 국경을 넘나들 이유는 없다. 모든 사물은, 모든 대상 안에는 파고들면 연동하는 동아시아가 나온다고 봐요. 다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한국전쟁이나 한국의 학술제도를 보더라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대상으로서 동아시아를 주로 관심갖는 기존의 연구와 제가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아시아적 시각은, 분석 단위가 일국이 아니라 지역이고, 연구 대상이 무엇이든 파고들면 다 연관되어있다는 연관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당연히 현실하고도 연관이

되어있으며 미래의 프로젝트와도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과제로서의 동아시아라고도 불리지요. 그러니까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드는 과제라든가, 역사 화해 등 현실이나 미래에 대한 관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제 주장을 동아시아 공동체론으로 분류합니다. 역사 논의라기보다는 주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저의 일부를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거와 현실과 미래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지 단절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대상도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역사 대상에 대해 발언을 할 때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발언이 있어요. 오늘의 중국 인권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중국의 30년대, 40년대 인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은연 중에 오늘에 대한 발언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이지요. 연구 소재를 정할 때부터 그런 것이지요. 저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걸 드러내 놓고 얘기하는 편인 것입니다. 왜 은연 중에 얘기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드러내 놓고 얘기하고 비판할 사람은 비판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게 해야지 자기는 전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는 실증적 연구라고 자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를 동아시아공동체론자라고만 보는 것은 저의 일부만 본 것이지 저의 전체를 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최: 저는 최근에 선생님 글을 다 읽었고 수업 시간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현재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가능한 방법인가. 수궁이 가면서도 굉장히 평화롭고 이상주의적이지 않

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백: 물론이죠. 자주 받죠. 국내외에서. 그것에 대한 답은 그래요. 그것도 역시 저의 일면을 짚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해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 제 논의에는 미래의 프로젝트로서의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다가오는 미래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속에서 완전한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실재하는 것이 아닌 듯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에 대한 지적이라면 저는 수긍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 글이, 제 주장이 학생들에게 또는 독자들에게 너무 이상적으로 보였다고 하면 현실 속에 들어있는 미래의 가능성, 미래의 싹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물이나 대상을 짚어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제 글들이 다소 총론적인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각론이 조금 약하다고 할까, 구체성에서 약하기 때문에 실감이 덜할 수는 있죠.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달리 연구하고 서술해볼까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면서 구체적으로 좀더 실감을 갖게 하는 연구 소재를 정해서 거기서 어떻게 미래의 싹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싹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만 가는 미래가 아니고 파국으로 가는 미래도 있다. 국가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이제까지는 연중에 조금 당위적으로 화해와 평화의 미래만을 많이 생각했고 그 가능성이 현실에 있는 것으로, 혹은 과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교류

와 화해의 역사 쪽을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래라는 것이 꼭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다시 현실을 보는 그런 노력도 좀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합니다.

최: 정치학 연구자들 일부는 현실정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게 모든 국민국가의 원리이므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도 합니다. 백: 그러한 주장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자들은 단기적 시각에서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기적 시각에서 당장 가능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문학은 상대적으로 중장기에 관심이 많아요. 가치와 문명 뭐 이런 것들이지요. 단기만 보는 사람들은 힘의 관계, 현실을 움직이는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는다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치라든가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감정, 이런 것을 중시하지요. 양자는 물론 결합은 되어야죠. 이 점에서 저를 돌아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2013년에 『핵심현장에서 동아시아를 다시 묻다』라는 책을 출판했더니 현대중국정치연구회 분들이 초청해서 그 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당신은 현실에 작동하는 힘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문학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과학과의 결합을 강조해왔지만 역시 인문학적 취향이 강하구나. 그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은 너무 단기적인 현실 정치, 즉 현실을 움직이는 힘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회과학 내부에서도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꼭 그런 이해관계나 힘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주의 말고 구성주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국제관계, 외교 관계에서 국가 간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지

도자의 생각이라든가 사람들의 인식이나 감정의 문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것을 그들도 강조하지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특징을 결합시키는 것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의 문제이지 방향으로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최: 향후 동아시아 담론 관련해서 영어로도 번역작업을 하고 더 발신력을 갖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로벌화 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담론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것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백: 새로운 연구 영역과 관련해서는 얼마만큼 내 지적인 관심과 활동영역을 넓힐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영역의 확대가 지리적인 공간을 넓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아시아 언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사고하고 활동해 왔는데, 지금 다시 영어를 더 열심히 해서 영어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설득하는 일을 벌일 것인가예요.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영어권 독자들을 의식하면서 글을 쓴다든가 단행본을 낸다든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언어권 독자를 새로 의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 담론의 핵심에 들어가지 않으면 관심을 끌기 어렵지요. 한국 논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 파급력이 없지요. 한국 사람들이 왜 저런 데에 관심을 가질까? 가 그들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들 관심사로 파고들어가 한국의 관심사와 대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들의 담론에 개입해 들어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민하면서도 아예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담론의 미래를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담론이 침체된 면이 있어요. 침체의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현실의 응용력이랄까 적용력이 있는가의 문제이죠. 예를 들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부에서도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추동력이 생겼는데 지금은 아니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국가 간의 이익으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동아시아 담론이 현실적인 돌파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구요.

또 하나는 글로벌한 차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잘못하면 동아시아주의로 갈 수가 있거든요. 모든 것을 동아시아 안에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문제지요. 제 주장은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이나 문명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글에다 쓴 얘기지만 동아시아 담론의 출현 배경을 보면 70년대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제 3세계론과 관련이 있어요. 제 3세계론이 민족해방론에서 출발해 확장되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실감이 덜했던 면이 있어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소설을 잘 안 보더라고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3세계적인 비판정신, 즉 세계 현실서에 대한 비판정신은 가지고 있되, 서구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가지고 있되, 대상은 동아시아로 한정하자, 지역적으로, 문명적으로 같은 곳부터 집중하자라고 해서 동아시아 담론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민족주의에 대한 성찰, 비판은 그대로 가지고 가구요. 그와 같이 제3세계론과의 연결이 있었는데 동아시아 담론이 유행하다 보니까 원래 지향과 다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3세계적인 맥락, 그것이 글로벌한 차원이거든요. 새로운 세계, 또하나의 글로벌이지요. 또는 대안적(alternative) 세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놓친 것 같아서 저는 요즘 ‘글로벌로지(glocalology)’, 지구

지역학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저는 중국연구자가 현실 변화에 좀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중국 학계의 동향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 아다시피 중국이 이미 세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잖아요. G2라고도 불리고요. 그러다보니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도 지구사(global history)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어요. 이미 중국 학자들도 느끼고 있어요, 그들은 글로벌한 존재라는 것어요.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중국사를 글로벌 히스토리화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가 그들의 새로운 과제입니다. 그런 실정이라면 당연히 한국의 중국사 연구자들도 그에 대응해야 해요. 세계사적 문제로서의 중국을 다루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대상이 화교든 물건이든 이동이든 뭐든간에 중국 자체가 이미 세계사적인 함의를 안고 있고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 아직 그런 연구를 시작하지는 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 중국도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기된 동아시아 담론의 심화를 위해서도 그 적용력을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역간 문명 간의 상호작용이랄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동아시아 담론의 내적인 문제 즉 현실돌파력의 한계와 더불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원래 제가 올해 초 학장이란 보직을 안 맡았다면 바로 그 과제에 도전하려고 했죠. 이번 여름 페테스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지구사와 중국사' 폐널에 초대받고 수락했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후배들이나 동료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국사적으로 연구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

러나 실감이 덜한 글로벌차원으로 바로 가지는 말고 글로벌과 로컬의 중층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클로컬로지란 발상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와도 접목되어 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대상 연구에만 치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 글로벌한 시각에서의 연구는 꼭 필요합니다. 당장은 기존의 관련 논의들만이라도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시각을 가다듬고 그 결과를 자기가 관심 있는 대상에 적용하면 될 겁니다.

박: 최근 중국에서 발표하신 개방시대의 논문도 이러한 동아시아론의 관점에서 중국의 지식계를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저널의 지난 호에 실린 허자오티엔(賀照田) 선생님의 글이나 탕샤오빙(唐小兵) 등의 글에서 진단하고 있듯이 중국의 지식계는 지식인들이 오만함이나 중국문화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몰입이라는 시각이나 태도도 보이고 학문적으로도 중국의 문명의 보편성을 드러내고 확산시키는 것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지식계의 상황을 동아시아론의 핵심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백: 쉽게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문제는 사실은 제게 중국의 사상적 지도를 그려보라고 주문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것은 한 개인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지를 간행하는 주체인 국민대학교의 HK사업단에서 집단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죠. 그런데 제가 개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저 역시 중국 동시대 사상동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는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중국 사상계의 논의에 조금씩 개입하고 있는 거지요. 『개방시대開放時代』에 실린 글들을 포함해 중국어권 독자를 향해 발신하는 일련의 작업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연구자로서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역시 관련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써서 발표하는데 비록 한국말로 쓰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중국 논의에 개입한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중국어로 쓰든 번역의 형태든 중국 논의에 직접 개입을 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지적 작업에 생기가 돌고 긴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중국 논의를 한국에 소개하는 데 그치기 쉽지요. 소개글은 한국말로 쓰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내 것 소개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 받는 게 다일 수 있습니다. 주로 소개해준 다음 문제점을 약간 끝에 지적하는 정도로 논의한다는 것은 국내 독자용 해설로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좀더 생산적인 지적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적인 차원에서도 비대칭이 심합니다. 중국책이 우리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많지만 거꾸로 우리 책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사례는 적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정반대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게 한국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각에서 중국 자신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중국인들이 경제계든 학술계든 정치계든 뭐든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주의를 갖게 해야 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것은 한류(韓流)뿐입니다.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연구자라면 자기 지적 작업을 번역을 하든 자기가 직접 중국어로 하든 중국에 가서 발표도 하고 중국

논의에 개입을 해 들어가야 한다. 항상 중국 독자를 염두에 두고 써야 해요. 중국 지식인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합니다. 이미 중국의 지식생산의 발신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이 닿는 한 중국 지면에 글을 싣고 학술 모임에 가서 발표하려고 애쓰지요. 그 이유는, 되풀이해 강조하지만, 중국논의에 개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논의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가면 저널에는 실릴지 모르지만 담론의 장에서의 영향력이 없어요. 담론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의 전략은 사상계의 지형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자들 몇 사람을 차례차례 다루는 것입니다. 그 중 쉬지린(許紀霖)에 관한 글이 이미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되었고, 아직 우리말로 발표되지는 않고 대만 잡지에서 곧 나올 거자오광(葛兆光)에 대한 글이 또 있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중요한 맥을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비평적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은 비평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려면 논술방식에서 한국의 담론과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흔히 는 중국 지식인의 얘기를 소개만 하면서 다른 중국 지식인의 얘기를 끌어 들이며 논평한단 말이에요. 신좌파랑 자유주의랑 비교한다든가 하는 식이지요. 이런 방식은 중국 지식인들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담론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단순한 연구성과만이 아니고 한국의 중국학계 이외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쟁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동시대 문제는 서로 연동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논의입니다. 예를 들면, 저라면 제가 속해 있는 창비그룹과 관련 있는 ‘복합국가론’이라든가 ‘근대의 이중과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에 개입하는 것이지요. 좀더 확장해 얘

기하기 위해 제 책 『사회인문학의 길』(2014)에 실린 비판적 중국학에 대해 쓴 글에서 언급된 대목을 언급해보겠어요. 중국 연구가 한국 사상의 맥락에 연결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담론을 가지고 어떻게 중국의 논의에 개입해야 할까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본주의나 국가의 문제를 어떻게 본다든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본다든가, 여성이나 소수자 인권을 어떻게 본다든가,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어떻다라는 논의는 모두 글로벌한 차원에서는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적으로 발현된 특징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 한국에서의 논의를 활용해서 중국 논의에도 개입해 들어가는 방식을 택해야 주체적이고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신 중국 지성계의 지도를 그리라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안되었지만 제 식으로 중국인들의 논의에 개입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질문과 더 근접하기 위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지식계가 빠질 수 있는 병폐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시대 중국 사상계를 연구할 때 특정 인물과 본인의 사고를 일치시키는 문제입니다. 이미 일본에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 문혁파와 반문혁파로 나뉘어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왜 그런 병폐가 오냐면 중국 현실에 밀착해버려서 그랬던 것입니다. 한국의 맥락 속에서 중국 논의를 재구성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중국의 누구와 밀착을 해서 그것을 한국에 소개하려고만 든다면 곤란합니다. 그러지 말고 중국의 당대 논의하고도 비판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제 이런 논의가 온당하다고,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독자에 따라서는 백 선생은 도대체 입장이 뭐냐. 신좌파의 입장이나 자유주의파의 입장이나, 아니면 뭐냐. 또 좌파

의 입장에서도 중국위협론이나 아니면 중국역할기대론이나 입장을 명확히 밝히려는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두기 선생에게 학문 훈련을 받은 입장이기에, 그분의 제자치고는 비교적 입장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너무 쉽게 드러내는 논술 방식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더라도 비판적 거리는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 거자오광(葛兆光) 선생님의 관해 쓰신 글은 아직 발표가 안 되었는데지요?

백: 대만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가 나오는 출판사에서 제 책이 3월에 나왔어요. ‘횡관동아橫觀東亞’라는 제목입니다. 그 전의 중문저서인 『사상동아』와 짝을 이루게 하려고 붙인 제목인데, 동아시아를 수평적 시각, 연대의 시각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부제는 ‘핵심 현장에서 동아 역사를 다시 생각하다’지요. 7월 달에 이 잡지에서 그 글이 나옵니다. 거자오광이 자신의 답론에 대해 해외에서 관심이 많으니 외국에서도 이를 확장시키기 위해 외국에서 학술회의를 많이 조직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작년 3월에 홍콩에서 회의를 조직했고 제가 거기서 글을 발표했어요. 그 글이 이번 7월에 나올 것이고 한국에서도 한국어로 발표할까 해요.

제 논술방식은 이렇습니다. 쉬지린이 바로 그랬듯이, 중국 지식인들이 새로운 문명담론, 대안적 보편성을 주장하고 싶어하잖아요. 그걸 저는 단순히 중국중심주의라고 비판하지는 않아요. 서구중심주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구든 그렇게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월러스틴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보편, 보편적 보편주의는 각지에 있는 다양한 보편성 논의들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한 것에 저는 동의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서도 그런 담론이 나오

면 좋고요. 전통 사상에서 취해오든 지금 누가 그걸 만들어내든 다 좋습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노력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비판하거나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단 대화, 특히 비판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쉬지린이 말하는 신천하주의라는 문제의식에 원칙적으로 긍정을 하되 당신이 의도하는 것에 도달하려면 통과해야 할 몇 가지 시험이 있다. 그것을 제 나름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게 비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르나, 일종의 비판적 지지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비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백교수는 쉬지린을 지지한다고 보지만, 예컨대 거자오광은 백영서가 사실은 쉬지린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겸손’(客氣)하게 비판한다고 어떤 글에서 언급하더군요. 저는 똑같은 논술방식으로 거자오광의 주장이 뭔지는 알겠는데 당신이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묻기도 했지요.

또한, 그가 말하는 주변 시각하고 내가 말하는 이중적 주변 시각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꼬집어 얘기를 했고 몇 개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더 생각을 넓히려면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면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식의 대화법이에요.

최: 저도 거자오광의 『이 중국에 거하라』를 읽었는데 별로 중국 외의 지역에 대해서 진심으로 알려고 하는 거 같지는 않구요, 실제 중국의 지식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서 너희에게 한국은 무엇이고 주변의 국가는 무엇이나는 질문을 주변에서 하지 않고는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 같

습니다.

백: 제가 중국 지식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한국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본 중국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적 비대칭이 심해요. 일본에도 관심이 별반 없어요. 거자오광은 그래도 일본어도 알고 일본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져오지만 역시 일본 정도만 인정합니다. 일본의 교토학과 정도이랄까요. 한국에 관심 없게 된 것은 우리 탓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입을 만한 것을 많이 제공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박 교수처럼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중국어로 발표도 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주변의 시각이 필요해요. 이중적 주변. 서양 중심의 세계사 전개에서 주변인 동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안에도 중심과 주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중의 주변의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죠.

III. ‘운동으로서의 학문과 제도로서의 학문’

－ 학문교류의 네트워크와 확장

최: 『창작과 비평』에서 활동하셨을 때가 궁금한데요. 창비에서 주간을 오래 하신 것은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되고 선생님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 어떻게 창비에 취직했는가부터 얘기하자면 아까 말한 리영희 선생과 관련이 있어요. 리영희 선생님의 『8억인과의 대화』를 출간할 때 번역문도 봐 드리는 등 조교 노릇을 한 셈인데 바로 그 책 때문에 1977년에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 가셨죠. 그때 발행인인 백낙청 선생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영희

선생의 개인적 조교니까 재판과정에서 잔심부름도 제가 했어요. 예를 들면 서명을 받는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맥에서 아예 숙식도 하고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그런 일을 했는데 백낙청 선생님이 보시고 ‘아, 이 친구를 데려다가 창비에서 일을 시키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78년 말에 그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어차피 복학할 가능성은 멀어 보이고, 유학을 가는 것은 더 더욱 불가능해서 그렇다면 그 당시 창비는 저항담론을 퍼뜨리는 중요한 지식생산의 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저에게도 좋은 경력이 되고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서 취직을 한 거죠. 잡지 기자로요. 그러다가 79년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글도 쓰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뒤 지금까지 창비와의 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 기획위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관여를 해서 아르바이트 비슷하게도 했고, 정식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있고, 전임된 이후에는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30년이 넘었죠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창비라는 것은 운동으로서의 학문을 하는 또 하나의 장이었다. 대학은 아니니까. 제가 말하는 제도로서의 학문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대학 안에 제도권이죠. 그렇다면 창비는 운동으로서의 학문을 하는 장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된 이후에도 편집위원을 계속 했으니까 저는 이제 제도로서의 학문과 운동으로서의 학문이라는 것을 한 몸에서 동시에 구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용어를 가지고 글을 쓰겠다 라고 생각한 것은 2001년이었어요. 전에는 이런 것을 경험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하나의 언어로 표현은 못했다가 2001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상반기에는 반년 동안 대만에 있었고 2001년 하반기에는 나고야에 가 있었는데 가기 직전인 2000년에 『동아시아의 귀환』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제가 책을

낸 게 93년 『중국 현대 대학 문화 연구』라는 학위논문을 일조각에서 간행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10년 간 동아시아 담론에 관해 쓴 글들을 2000년에 묶어서 냈고 그러고 나서는 다음에 뭘 연구할까? 라고 안식년 맞아서 대만에 가서 생각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정체성에 관한 궁금증을 푸는 연구를 하는 것이 흥미가 있어 소위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인 교수와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규명해보자. 이렇게 내 경험을 돌아 볼 때 ‘운동으로서의 학문과 제도로서의 학문’이라는 식으로 전개해보면 어떨까. 두 가지 길항관계에 대해서 고민했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만 가서 발표했던 것이 경성제국대학에 대한 글인데, 활자화된 것은 일본의 『현대사상』(2005)에서가 먼저였어요. 경성제국대학 안의 학문과 경성제국대학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조선학 운동을 비교한 것이지요. 제국 대학 밖의 지적 활동은 ‘운동으로서의 학문’이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학 연구는 관학인데 그것을 ‘제도로서의 학문’으로 본 것이죠. 그러다가 동양사학, 중국학에 적용한 글로 넓혀간 것입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대학 내 한 분과학문 내에서의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학자들 간의 교류와 연대, 지식인들의 사회적 실천, 나아가 국제적 학문교류 등 연구와 소위 실천을 겸비한 학술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연구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러한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 및 주로 중요하게 활동해 오신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제적 교류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교류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지요. 특히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연대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중국의 근현대사 연구자들의 한일교류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의 학술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백: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제가 외국을 처음 간 것은 90년이었고 94년부터 중국을 드나들었어요. 94년 1월에 연세대학에 서류를 내놓고 그 당시 민두기 선생님이 진행하는 ‘호남성 연구 공동팀’을 따라 처음 중국을 여행했어요. 그 이후 중국을 드나들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지식인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점에서는 별 관계가 없었구요 결정적인 계기는 2001년 안식년 맞아서 반년간 대만에, 하반기에 반년 나고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대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오랜 친구인 첸광싱(陳光興)이라는 친구가 바로 그런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한국 지식인들하고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했는데 결절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서로 만나 확산이 되지요. 그가 저를 선택했고 저도 그 친구를 선택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로 연계가 된 것이구요. 또 동시에 일본 가서 반년 동안 있으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지식인들하고도 연계가 되었구요 그리고 언어가 되어야 했는데요 그 전만 해도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해서 2001년에 반년 동안 타이베이에 머무르면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었고요. 일본에 가서는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일본어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말이 좀 되어야 사람들하고 교류가 되지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대륙에서는 쑨거(孫歌)가 교류의 상대가 되었어요.

2001년 초인가 일본 국제회의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거기서 쑨거를 처음 만났죠. 물론 나중에 쑨거가 얘기하기로는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북경에서 좌담회에서 저를 한 번 봤다고 하더라구요. 99년에 쑨거가 내 글을 비판을 했어요. 99년인가 제가 『독서讀書』 잡지에 ‘중국에는 동아시아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쑨거가 비판을 한 것예요. 그러다가 2001년에 요코하마에서 만난 거죠. 그 때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된 것이죠.

이후 일본 지식인들이 초청해 학술회의도 많이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저를 자주 부른 이유는 중국어, 일어를 다 한다는 것 말고도 저는 늘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뭘 보니까 관심을 더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국 얘기만 했으면 여기저기서 초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면 중국, 일본, 대만 얘기가 동시에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적 관심을 갖게 되고 다 자기네 맥락에서 제 주장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저는 2000년대 이후로는 글을 쓸 때는 늘 중국어권 독자와 일본어권 독자를 염두에 두죠. 영어권 독자는 아직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확실히 맥락이 많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동아시아권 독자는 식민의 문제라든가 제국의 문제라든가, 또 냉전의 문제라든가 탈냉전의 문제라든가 미국 패권의 문제라든가 또는 지적인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가 통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이 지적 식민성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서구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동아시아인끼리의 수평적인 참조체계를 만든다는 점에서 지금 말한 그룹들이 동조를 했고 그것을 유지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단체라든가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2006년에 시작한 창비 창간 40주년에 시작한 〈동아시아 비판적 잡지회의〉였고 그것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울의 동양그룹에서 운영해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던 서남재단에서 총서라든가 국제회의를 하는 것들을 다 지원해줬기 때문에 물적 기반에 힘입어서 그것을 활용했고요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가 한 번 만들어지면서 자꾸 확산이 되어간 겁니다. 초청하면 또 사람 만나고 만나면 넓혀지고 하니까 2000년대 들어서 저는 국제회의를 꽤 많이 다녔어요.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사회도 보고,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었죠.

또 하나 만든 것이 〈동아시아역사연구자포럼〉이라고 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 이것도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같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특성에 맞춘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제서원亞際書院〉(Inter-Asia School)이라는 민간연대기구가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제일 깊이 관여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홍콩의 몽주(夢周)재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동남아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에 각 지부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북경, 상해, 항주, 일본에 동경과 오끼나와 이런 식으로 있고, 서울에도 있구요 문화교류 연대활동이 주요 사업입니다.

박: 저도 페이스북에서 인터아시아스쿨을 보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북경에서 젊은 역사학자들이 50년대 연구로 모였습니다.

백: 그것은 북경 사무소가 주관하는 하는 사업이에요. 각 사무소가 독자적인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박: 북경 사무소에서 했지만 한국이나 대만 연구자들 다들 모였기에 재미있다는 활동이라 생각 했습니다.

백: 그야말로 국경을 넘는 민간 교류인 것이죠.

박: 여기 참가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백: 그런 것은 없지만 현재는 반공개적인 상태예요. 무조건 넓힐 수가 없어서 일부 연구자들 위주로 모이고 있는데, 한국 지부는 앞으로 참여 범위를 조금 넓혀 보려고는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참여하도록 도와주려고도 하지요.

이렇게 〈아제서원〉, 더 거슬러 올라가 〈동아시아 비판적 잡지회의〉, 〈동아시아역사연구자포럼〉, 〈서남재단〉 등등 기구를 활용해서 연대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연대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적’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조직 하는 것은 규모는 크더라도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많고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들의 자발성을 띤 모임이니 소위 서구중심주의를 벗어난다든가 탈식민, 탈냉전, 탈제국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이지만 누적이 됩니다. 경험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활동주체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적이 경험입니다.

조금 조금씩 하더라도 누적이 되어야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나 자본가가 지원해주는 것이면 큰 규모로 할 수는 있어도 누적이 잘 안될 수 있어요. 비록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험이 누적되는 것이 그나마 성과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참여자들끼리 신뢰가 쌓입니다. 그 목적은 다언어로 생각하고 글 쓰며 내 안의 동아시아를 찾아 자신을 그 맥락에 놓고 상대화해 보는 것입니다.

박: 〈아제서원〉 대만쪽 지부는 잡지 『대만사회연구臺灣社會研究』 인가요?

백: 그렇죠. 중심멤버 중 하나죠.

박: 사실 그 주요 구성원인 쉬진위(徐進鈺) 선생님이 『역사와 비평』에 글을 실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몇 번 보았습니다. 자신은 중국대륙 가는 것보다 서울 오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합니다. 유학도 대륙에서 한 사람이지만 한국이 훨씬 인터내셔널하고 마음도 편하다고 말하더라구요. 아무튼 이러한 활동을 10년이나 활동을 해오시고

점차 지식인들의 연대가 확장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을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백: 그 글은 대만 총통 선거 전후한 정치상황을 심층분석한 좋은 글이었어요. 네트워크는 하는 사람이 선의만 있으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만들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앞으로 중국을 볼 때 중국 안에도 주변적 존재가 있고 바깥에도 주변적 존재가 있는데 주변적 존재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물론 중심의 주류적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그들과도 친하게 지내야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되다는 겁니다.

IV. 한국사회 지성인으로서의 삶

박: 선생님께서는 한국대학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함께 걸어오신 대학사회의 일원이시고 오랫동안 학문생산과 후학양성에 힘써 오신 분이십니다. 한국대학이 양적 성장을 이루어 대학의 대중화 이전부터 글로벌화로 인한 시장화, 이로 인한 인문학의 쇠퇴, 대학의 각종 연구환경의 변화 및 위기 등을 현재까지 겪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학이 처한 현실에서 대학의 역할과 방향성 등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대학사회의 변화의 궤적과 방향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문제에 대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백: 이 질문은 중국 연구자한테 물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닌 듯하지만 대학에 몸을 담고 있기에 답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운동으로서의 학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어요. 연세대학교에 온 이후로, 제가 94년

도 3월에 부임을 했으니까 2018년 8월 정년퇴임하게 될 텐데 그때면 24년 정도 근무한 셈이지요. 그 전 한림대학 근무한 기간까지 합치면, 32년 대학교수 생활을 하는 거네요. 그간 사실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의 학문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안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잡지 주간 노릇하랴 각종 국제활동 참여하랴 대학 안에서 제대로 뭘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2007년 9월 국학연구원장 발령을 받았고, 발령받으면서 이왕 할 바에는 연세대에서 가장 큰 인문학 분야의 연구소의장이 되었으면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지 그냥 보직만 맡는데서 끝내면 무책임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HK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자기 연구 관심사와 그 연구소의 연구방향이 일치하면 가장 행복한 것 아닌가요. 제게는 그 행복한 경험을 사회인문학이란 사업에서 맛본 셈입니다. 왜냐하면 제 정체성이랄까 경험이 녹아있는 것이 사회인문학이니까요. 그것을 저 혼자 연구태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계량적 평가를 벗어나서 현실과의 접목도 하면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자기 정체성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들을 모으는 것은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학연구원을 맡은 김에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 다행히 HK사업단으로 채택이 되어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자도 그런 방향으로 뽑고 꾸려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때부터 대학 안에서의 제도로서의 학문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제 책 『사회인문학의 길』(2014)에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제도로서의 학문이라는 것이 운동으로서의 학문과 딱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로서의 학문과 운동으로서의 학문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제도권 안에서든 밖에서든 제도권의 주류적 학술 담론과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탈제도적인 흐름이 있다면 그것

도 운동으로서의 학문으로 포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동 속에서 제도를 보고 제도 속에서 운동을 보는 형태로 제도와 운동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파악하자는 것, 달리 말하면 ‘학문의 운동화, 운동의 학문화’가 제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원장을 연임 세 번 해서 8년 했어요. 그래서 동력을 얻었고, 파급도 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이 질문 항목에 사회인문학이 들어올 정도로 확산됐다고는 봐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중국 친구인 쑨거(孫歌)가 언젠가 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답내용도 『사회인문학의 길』에 실려 있습니다만, 저한테 제 활동이 부럽다고 하면서 힘든 것은 뭐냐고 묻길래 이것이 제대로 될까? 과연 제도 안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제도의 벽이 너무 높아 늘 걱정이다라고 하니 그 친구가 나에게 조언을 했어요. 실패를 각오하고 해라. 실패 하더라도 흔적은 있는 것이다. 실패의 흔적. 이런 말을 한 것이 저한테는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성공하겠다고만 생각하면 너무 초조합니다. 그리고 성공 못하면 너무 좌절이 커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이 친구 통찰력이 있구나 생각 했어요. 어쨌든 제가 원장직을 2014년 8월로 그만두었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잘되었는가는 나중에 평가되겠지요.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후배 연구자들이 양적 평가 위주라든가 대학에서의 인문학의 위기라든가 대학은 어디로 가야하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제도 안에서는 변혁이 불가능하다. 모든 대학이 글로벌한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너무 얽매어 있기 때문에 한 대학 안에서 누가 뭘 한다는 것이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 설령 내가 총장이 된들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럼 다시 대학 바깥에 나가야 하는가

라고. 이제 정년도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학 밖에서만 가능성을 찾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차인데 올해 1월 달에 새 총장이 선출되면서 문과대 학장을 하라고 제안을 받았지요. 많이 고민하다가 승낙했습니다. 승낙을 한 이유는 한 번 더 실패할 각오로 뭔가 한 번 해보자. 제도 안에서. 그런데 국학연구원장으로 HK사업을 한 것은 연구자를 통해서 대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릴라 역할을 추구했다면 이번에는 문과대 학장으로 교육 경험을 가지고, 연구 현장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고 대학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실험을 좀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인생 경험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부른 기대는 애당초 안 해요. 우리 총장의 용어를 빌리자면 0.5°라도 방향을 틀어 놓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변화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0.5°만 틀어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0.5°를 틀어놓는데 만약 그 방향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1°, 2°를 돌릴 거라고 봅니다. 한 번 그 쪽으로 추동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정도라면 대학에서 약 30여년 간 교수생활을 하고, 연세대에 와서 20여년 근무한 사람으로 할 일이 아닌가. 연대만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니 실험을 해보자. 다만 개인 연구는 그 대신 늦춰지게 되는데 그것은 2년 뒤에 더 많이 하면 되고 제가 손을 놓지는 않을 테니까 한 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질문하신 대학사회의 변화의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현장과 관련된 일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그게 학과든 연구소든, 저처럼 단과대학이든 거기서 몇 개의 문제라도 해결한다면 그게 결국 0.5°의 방향을 트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미래를 선취하는 것, 미래의 일부를 현실

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데 그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라도 실현할 수 있다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원론적인 큰 주장, 예컨대 신자유주의로 대학은 죽어 폐허가 되었다고 말해버리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는 큰 담론상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자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실과의 정말로 지루한 격투가 필요하지요. 제가 정년퇴임하고 난 뒤에는 물론 관여할 수 없지만 현직에 있는 한은 자기 삶의 현장을 어떻게든 무시하지 말자 이런 각오로 임합니다.

최: 그러면 보직이 끝난 이후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연구하실 계획이신지요?

백: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났으니깐 외국 대학을 일년씩 다니며 지내려 합니다. 중국의 대학에서 일년, 대만의 대학에서 일년, 일본 대학에서 일년. 제가 만들어 둔 네트워크가 꽤 됩니다. 강의도 하고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지내려는 것이 하나의 계획이구요. 다른 하나는 좀더 대중적인 글쓰기나, 일반인들을 위한 강의를 해 볼까 합니다. 그건 제가 정년 한 이후 형편을 봐가면서 결정하려 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아직 지치지는데 외국에서 일년간 있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창비에서 창비학당이라고 해서 일반인을 위한 시민강좌를 개설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최: 역사학자로서 혹은 중국연구자로서 중국을 연구하는 의미에 대해 해 주실 말씀은 무엇인지요. 후학으로서 동시대 중국 연구자로서 저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백: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들과 맥이 닿는데요. 타케우찌 요시미(竹内

好)가 중국학 연구자의 경우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생활에의 흥미”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인의 생활이든 한국인의 생활이든. 인문학으로서의 중국연구든 지역학으로서의 중국연구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생활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연구를 너무 실증적 측면이나 현지연구 자체에 너무 치우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흥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대의 주요 담론이라든가 자기 삶의 현장과 연계를 얘기했던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생활에의 흥미, 인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있어야 한다. 자기 정체성도 포함되는 것이구요. 부단히 뭔가를 하고 싶은 호기심, 지적인 욕구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술적인 직업으로서의 연구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연구 논문은 쌓일지는 몰라도 그 안에 기운이 담기지 않으니까 읽는 사람도 그 기운을 못 느끼고 동시에 자기도 점점 갈수록 지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년퇴임 이후에 뭘 하겠느냐고도 물어봤지만 이런 식의 흥미, 생활에의 흥미는 늘 유지할 것 같고요 그게 열정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무언가는 할 것이다. 그런 것을 꼭 전하고 싶어요. 학문할 때 초기에는 열정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은 문제의식과는 달라요. 문제의식만이 아닌 정동(情動)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들도 좀 나누어야 합니다. 대개들 그런 얘기는 잘 안하잖아요. 잘못하면 사적인 영역처럼 보이기가 쉽지요. 그러나 저는 그게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은 중요한 자기 논의의 출발이 아닌가. 일본 역사학자들이 토론한 결과를 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역사학의 액츄

얼리티』가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액츄얼리티(actuality)는 현상성이라고 옮길 수 있을까요. 연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각자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개는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상생활의 현장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요. 역사학은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연구대상으로 삼기도 해야 하고요. 저는 늘 제 정체성의 문제를 탐구의 대상으로 전환시켜왔는데 그들의 주장과 같은 것이겠지요.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독자들과 한번 나눴으면 해서 얘기해 봅니다.

최·박: 장시간 바쁘신 와중에서도 중국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의 문제, 연구의 방법에 대한 문제, 동아시아론의 현재적 의미, 중국과의 연대 문제 등등 많은 이야기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들을 들으니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중국연구자로서의 열정'에 대해 되새김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기쁩습니다.

